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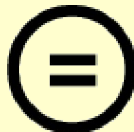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7차 및 7차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쓰인 구동사
비교 · 분석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엄 주 미

교육학석사학위논문

7차 및 7차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쓰인 구동사
비교·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엄 주 미

엄주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25일



주 심 영어학 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영문학 박사 윤 희 수 (인)

위 원 언어학 박사 김 은 일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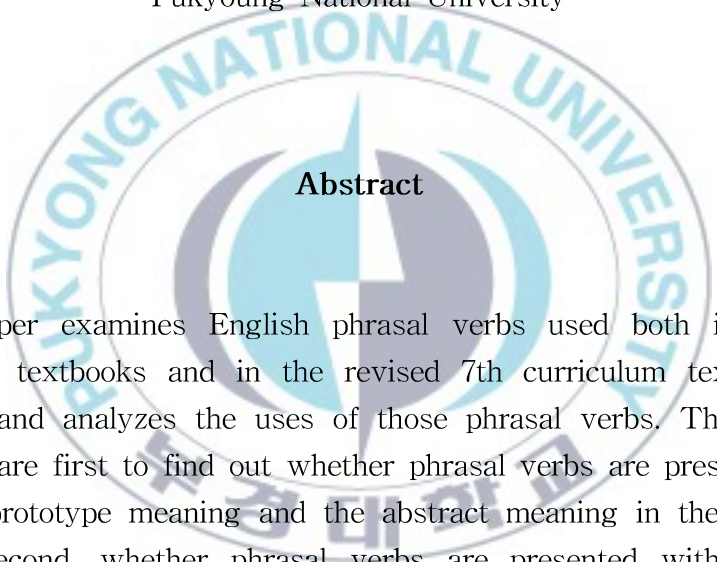
목 차

ABSTRACT	ii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4
2.1 불변화사와 구동사	4
2.1.1 불변화사	4
2.1.2 구동사	6
2.2 연구방법	8
2.2.1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9
2.2.2 문자의미와 관용의미	12
2.2.3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13
III 구동사의 분석 및 효과적 교수방안	15
3.1 분석결과 및 토의	15
3.1.1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15
3.1.2 문자의미와 관용의미	20
3.1.3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26
3.2 효과적 교수방안	32
IV 결론	34
분석자료	36
참고문헌	37

Comparison and analysis of phrasal verb uses between the 7th curriculum and the revised 7th curriculum

Ju-mi Eom

Graduate School of English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English phrasal verbs used both in the 7th curriculum textbooks and in the revised 7th curriculum textbooks.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uses of those phrasal verbs. The goals of the study are first to find out whether phrasal verbs are presented with both the prototype meaning and the abstract meaning in the textbooks or not. Second, whether phrasal verbs are presented with both the idiomatic meaning and the literal meaning or not. Third, whether a variety meanings of English phrasal verbs are presented through various example sentences of their use or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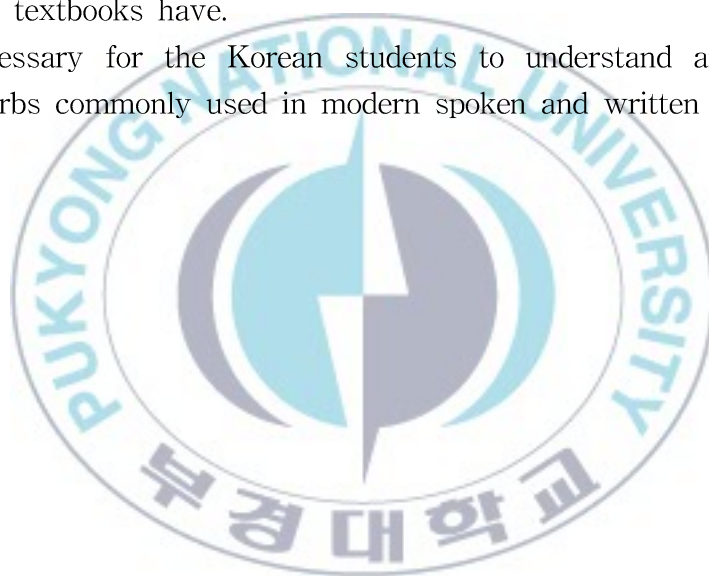
The phrasal verbs are from six English textbooks for the first-graders in the high schools. In analyzing the phrasal verbs, the author adopts the form-based approach (semasiology) suggested by Dirven and Verspoor (1998).

In conclusion, there are few cases of phrasal verbs presented with

both the prototype meaning and the abstract meaning though it's better for them to be presented with both meanings in the textbooks. There are also few cases of phrasal verbs presented with both the idiomatic meaning and the literal meaning though it's better for them to be presented with both meanings. And there are few cases of phrasal verbs with several different meanings presented through various example sentences of their use.

However there is a very good point that the revised 7th curriculum textbooks have more various examples of phrasal verbs than the 7th curriculum textbooks have.

It's necessary for the Korean students to understand and use the phrasal verbs commonly used in modern spoken and written English.



I. 서론

현대 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기르는 것이 큰 목표이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초·중·고 영어 교육과정도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쳐도 실생활에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구동사(phrasal verb)의 이해부족이다(구학관, 2000). 원어민들은 실생활 대화에서 구어체 표현으로서 구동사를 즐겨 쓴다. 원어민들은 아주 쉬운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문장을 구사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문장을 보면 대부분이 go, come, put, take, make, get, give와 같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동사들에 전치사와 부사를 적절히 결합하여 활용한 문장들이다. 그런 문장들은 구동사를 잘 활용한 문장인 것이다. 구동사란 영어의 동사가 부사 또는 전치사 즉, 불변화사(particle)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동사적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두 단어로 된 ‘동사 + 부사’ 또는 ‘동사 + 전치사’ 형태의 결합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구동사는 실제로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구동사의 뜻을 명확히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일상 대화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동사의 뜻이 단일 동사의 뜻과 같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불변화사가 동사의 뜻을 한층 완성시켜 의미를 나타내거나 은유적으로 확장된 추상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동사와 불변화사가 본래의 원형의미 또는 문자적 의미를 잃고 관용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200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로이 바뀐 영어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08학년도까지 가르쳐온 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와 2009학년도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새로운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구동사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6권이다.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쓰인 구동사를 비교해 보고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일 출판사에서 발행된 3종의 교과서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두산출판사의 High School English(7차 교육과정 및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시사출판사의 High School English(7차 교육과정 교과서 및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금성출판사의 High School English(7차 교육과정 교과서 및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이다.

이에 따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와 함께 제시되고 있는가?

둘째,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가 문자적 의미와 함께 제시되고 있는가?

셋째,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다양한 의미로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본 논의에서 이용될 구동사와 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제 3장에서

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쓰인 구동사를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토의하고 효과적인 교수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구동사를 구성하는 불변화사의 개념과 구동사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구동사의 원형/확장의미, 문자/관용의미, 과대부호화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2.1 불변화사와 구동사

불변화사(particle)의 개념과 구동사(phrasal verb)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본다.

2.1.1 불변화사

구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변화사(particle)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불변화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유무에 따라 전치사적 성격 혹은 부사적 성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각각 전치사적 불변화사(prepositional particle), 혹은 부사적 불변화사(adverbial particle)로 구분하여 부른다. 이러한 불변화사는 문맥에 따라 어떤 것은 부사적 불변화사로만, 어떤 것은 전치사적 불변화사로만, 또 어떤 것은 양쪽으로 다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Palmer(1974)를 따라 동사와 결합하여 구동사를 이루는 전치사와 부사 모두를 불변화사로 간주한다.

불변화사에 대한 학자의 정의와 견해를 살펴보면 Palmer(1974: 214)는

전치사와 부사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불변화사로 본다.

The term *particle* has been used in order not to distinguish, as yet, between preposition and adverb. For although it is possible to decide in almost any sentence whether a particle is an adverb or a preposition, a striking characteristic of many, but not all, of the particles is that they can function as either.

불변화사(particle)란 용어는 전치사와 부사를 구분하지 않기 위해 쓰여져 왔다. 어떤 문장에서건 불변화사가 부사인지 혹은 전치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두는 아니나 많은 불변화사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둘 다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cmillan Phrasal Verbs Plus(2005)는 구동사에 쓰이는 가장 흔한 불변화사로 around, away, back, down, in, into, off, on, out, over, through, up 12개를 꼽았고, *Collins COBUILD Phrasal Verbs Dictionary*(2002)에 따르면 up, out, off, in, on, down이 순서대로 사용 빈도가 높으며, 그 중 up과 out의 사용 빈도가 28%나 되었다(신명진, 2006).

이 절에서는 전치사와 부사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 불변화사의 개념과 구동사에 쓰이는 빈도수 높은 불변화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구동사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자.

2.1.2 구동사

영어에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한 단위를 이루어 기능하는 어휘 동사와 불변화사(particle)의 결합이 있다. 예를 들면 give up, cope with, look forward to 따위이다. 이런 결합을 ‘구동사’(phrasal verb)라 일컫는다.

Bolinger(1971)를 비롯하여 Celce-Murcia와 Larsen-Freeman(1999) 등은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을 ‘구동사’로 부르고 있으며, Courtney(1983)를 위시한 Cowie와 Mackin(1993), Houghton Mifflin(2005)과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Phrasal Verbs*(1989), Macmillan *Phrasal Verbs Plus*(2005), Oxford *Phrasal Verbs Dictionary for Learners of English*(2006), Cambridge *Phrasal Verbs Dictionary*(2006) 등의 거의 모든 사전에서도 ‘구동사’라 일컫는다.

구동사는 새로운 동사를 만들기 위해 동사와 전치사를 결합하는 숙어적 표현이다. 그 새로운 동사의 의미가 각 각의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구동사는 문어체와 구어체 영어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구동사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는 유연한 방식으로 항상 형성된다고 구동사 사전 웹사이트(<http://www.usingenglish.com>)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Phrasal verbs are idiomatic expressions, combining verbs and prepositions to make new verbs whose meaning is often not obvious from the dictionary definitions of the individual words. They are widely used in both written and spoken English, and new ones are formed all the time as they are a flexible way of creating new terms.

일상적인 대화나 소설, 일기, 편지 등과 같은 비격식적인(informal) 영어 문장에서 구동사의 활용 범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대 영어에서 구동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Hook(1981)는 구동사를 ‘이어동사’(two-word verb) 또는 ‘삼어동사’(three-word verb)라고 칭하는데 ‘이어동사’와 ‘삼어동사’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도구라고 지적하며 영어 말하기에서 구동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Celce-Murcia와 Larsen-Freeman(1983: 265)도 “Phrasal verbs are such an important part of colloquial English that no one can speak or understand conversational or informal English easily without a knowledge of them.” 이라고 지적하고 구동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Dowd(1998: 6)는 현대 영어에서 구동사의 쓰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Learners of English concerned about writing style may ask why so many verb-particle or verb-preposition combinations--put out, look into, and climb up--have one-word synonyms, such as ‘extinguish’, ‘investigate’, and ‘ascend’, respectively; and which alternative is ‘better’. They have heard somewhere that verb-particle combinations are ‘informal’.

문체에 관심이 많은 영어 학습자들은 왜 그리도 많은 동사-불변화사 또는 동사-전치사 결합어(put out, look into, climb up)들이 한 단어의 동의어(extinguish, investigate, ascend)를 가지는지 궁금하게 여긴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일상에서 더 많이 쓰이는 지도 궁금하게 여기는 데 영어 학습자들은 동사-불변화사 결합이 비격식적인(informal) 표현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동사를 많이 형성하는 동사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Collins COBUILD Phrasal Verbs Dictionary(2002)에서 제시하는 목록은 구동사를 많이 형성하는 동사들이다. 진하게 표시된 동사들은 특히 더 자주 구동사에 사용되는 동사들이다(신명신, 2006).

break, bring, call, cast, **come**, cut, do, fall, **get**, **give**, **go**, hang,
hold, **keep**, kick, **knock**, lay, lie, live, **look**, **make**, move, pass,
play, **pull**, push, **put**, **run**, send, **set**, sit, stand, stay, stick, **take**,
talk, throw, **turn**

이상에서 학자들이 내리는 구동사의 정의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 구동사의 중요성에 대해 학자들이 견해를 밝힌 것도 살펴보았고, 구동사의 쓰임과 흔히 쓰이는 구동사의 종류도 함께 알아보았다.

2.2 연구방법

구동사의 의미 중에서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문자의미와 관용의미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2.2.1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구동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알아야 한다. 원형의미는 구체적인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고, 확장 의미는 은유적으로 확장된 추상적 의미를 말한다. 구동사의 은유적 확장 의미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면 은유(metaphor)의 의미와 확장 의미 또는 의미 확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은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기보다는 특수한 언어의 문제로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풍부성의 도구로, 나아가 은유는 전형적으로 단순히 언어만의 특성, 사고와 행위보다는 말의 특성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유가 단지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위 즉, 우리의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 체계(conceptual system)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Lakoff & Johnson, 1980).

Lakoff & Johnson(1980: 5)은 또한,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The essence of metaphor is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one kind of thing in terms of another.

의미 확장은 원형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facet)에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임지룡(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미 확장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3) a. 구체성 → 추상성
 b. 공간 → 시간 → 추상
 c.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

이 양상들을 예를 통해 살펴보자. (3a)는 ‘밝다’가 빛(구체성)이 밝은데서 사리(추상성)가 밝은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그리고 (3b)는 ‘짧다’가 연필(공간)이 짧은데서 수업(시간)이 짧은 것으로, 또 경험(추상)이 짧은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3c)는 ‘짧다’가 연필이 짧은데서 경험(비유)이 짧은 것으로, 또 입이 짧은(관용성) 것으로 확대된다.

관용성을 제외한 다른 양상들은 주로 은유(metaphor)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다. 은유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개념영역들에 속한 것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일컫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개념들 중에서 용어가 사용된 원래의 개념영역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 하고 용어가 새롭게 사용된 개념영역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고 한다. 공간영역에 속한 ‘깨어진 틈’이라는 의미와 시간영역에 속한 ‘휴식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 ‘break’를 예로 들어보자. ‘깨어진 틈’이라는 의미를 지닌 break가 은유를 통해 ‘휴식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때 break의 의미가 ‘깨어진 틈’이라는 원형 의미(prototype meaning)에서 ‘휴식시간’이라는 확장의미(extended meaning)로 은유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즉,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것일수록 원형의미가 되고 시간적이고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것일수록 확장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은유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은유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구동사를 암기하지 않고도 쉽게 원형의미로부터 확장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구동사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쓰인 예를 보자.

(4) 구동사	원형의미(구체, 공간)	확장의미(시간, 추상)
look back	뒤돌아보다	(시간) 회상하다
step down	단을 내려가다	(지위) 하야하다
look down	내려다보다	(마음) 무시하다
look up	쳐다보다	(마음) 존경하다
get over	넘어가다	(질병, 위기) 극복하다
let down	내려가게 두다	(마음) 실망시키다
break out	깨고 나오다	(전쟁, 폭력, 질병) 발생하다

(김은일·박매란, 2002)

위의 예를 살펴보면, look back은 ‘뒤돌아 보다’의 의미인데 이는 실제로 ‘고개를 뒤로 돌려보다’는 뜻으로 구체적 행위이고 공간적 행위이다. 이런 구체적 행위의 의미로 쓰일 때는 원형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look back의 의미가 ‘회상하다’로도 쓰인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회상하면서 또한 추상적 의미이므로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step down은 ‘계단을 내려가다’와 ‘권좌에서 물러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두 의미는 실제로 ‘계단을 내려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공간개념에서 조직의 위계에서 ‘직급이 내려가다’라는 뜻의 추상개념으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구동사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문자의미와 관용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2.2.2 문자의미와 관용의미

관용적 의미는 앞의 (3c)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의미가 관용적인 의미로 확장된다. 일반적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문자적 의미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 즉, 문자적 의미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발전되어 관용적 의미가 된다. 추상적인 의미는 은유적 확장 의미라 하고 추상적이지 않은 비유적인 의미는 관용적 의미인 것이다.

구동사의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로 쓰인 예를 보자.

(5) 구동사	문자적 의미	관용적 의미
put off	떼어 놓다	연기하다
look after	뒤따라가며 보다	돌보다
put out	내놓다	끄다
stand out	밖에 서있다	뛰어나다, 돋보이다
turn up	돌려서 높이다	나타나다
look up	쳐다보다	찾다
turn down	돌려서 낮추다	거절하다
carry out	운반해 나가다	수행하다

(김은일·박매란, 2002)

위의 예를 살펴보면, put off의 문자의미는 ‘떼어 놓다’이고 관용의미는 ‘연기하다’이다. look after의 문자의미는 ‘뒤따라가며 보다’이고 관용의미는 ‘돌보다’이다. 그리고 put out의 문자의미는 ‘내놓다’이고 관용의미는 ‘불을 끄다’이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구동사 put off, look after, put out 등을 학습할 때 주로 관용적 의미만 암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원어민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가 문자적 의미와 함께 소개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구동사의 문자의미와 관용의미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과대부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2.3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과대부호화된 구동사란 영어에서는 하나의 표현으로 존재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다양한 표현으로 부호화되어 나타나는 구동사를 말한다.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예를 살펴보자.

- (6) make up (얼굴) 화장하다, (사람) 화해하다, (수업) 보충하다, (이야기) 꾸미다, (집단) 구성하다, (마음) 결심하다
take off (옷) 벗다, (비행기) 이륙하다, (시간) 쉬다
turn off (전기, 시동) 끄다, (물) 잠그다
turn on (전기) 켜다, (수도) 틀다, (시동) 걸다
come across (사람) 우연히 만나다, (물건) 우연히 발견하다
pick up (물건) 집어 들다, (사람) 차로 태워주다, (언어) 익히다

(김은일·박매란, 2002)

위의 예를 살펴보면, make up은 화장하다, 화해하다, 보충하다, 꾸미다, 구성하다, 결심하단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호화되고, take off는 벗다, 이륙하다, 쉬다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학습자가 make up이나 take off의 이 중 하나의 의미만 학습한다면 학습하지 않은 다른 의미에 관해서

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 다른 표현으로 부호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여러 가지 표현 사이의 의미적 관계가 인지적으로 멀리 느껴지기 때문이다. make up의 경우, 앞 절에서 논의한 원형의미에서 확장된 의미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그 어떤 의미도 원형의미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교과서에서 골고루 잘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의미와 예를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쓰인 구동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논의하고 효과적 교수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Ⅲ. 구동사 분석 및 효과적 교수방안

3.1 분석결과 및 토의

고등학교 1학년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구동사의 원형/확장의미, 문자/관용의미 그리고 과대부호화된 의미 순으로 살펴보겠다.

3.1.1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구동사의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와 더불어 제시하고 있는지를 7차 교육과정 교과서 3종과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3종에서 조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1> 7차/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분포

	두산 7차	두산 7차 개정	시사 7차	시사 7차 개정	금성 7차	금성 7차 개정
원형의미	6(54.5%)	4(44.4%)	11(61.1%)	4(30.8%)	3(33.3%)	6(42.9%)
확장의미	4(36.4%)	5(55.6%)	7(38.9%)	8(61.5%)	5(55.6%)	7(50%)
원형의미 + 확장의미	1(9.1%)	0(0%)	0(0%)	1(7.7%)	1(11.1%)	1(7.1%)
합 계	11	9	18	13	9	14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쓰인 구동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분포를 교과서별로 살펴보겠다.

A. 두산출판사 교과서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원형/확장 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11개이다. 이 중 원형 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6개(54.5%)이고, 확장 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4개(36.4%)이다. 11개의 구동사 중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7)과 같이 1개(9.1%)이다. 예문 (7a)는 원형 의미이고, (7b)는 확장 의미이다.

(7) a. He **put** the adhesive **on** the back of his paper strips.

(~에 두다-6과)

b. Her parents **put** their story **on** the net. (인터넷 상에 올리다

-5과)

위의 예문 (7a)의 ‘put on’은 ‘종이 조각 뒤에 접착제를 바르다’란 뜻으로 실제로 접촉하여 ‘~에 두다’의 의미이므로 원형 의미이고, (7b)의 ‘put on’은 ‘인터넷 상에 이야기를 올리는 것’은 구체적 공간에 위치한 물건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 둔다는 의미이다. 이는 의미가 확장되어 ‘~에 올리다’의 뜻이므로 확장 의미인 것이다.

두산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원형/확장 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9개이다. 이 중 원형 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4개(44.4%)이고, 확장 의미

로 쓰인 구동사는 5개(55.64%)이다. 9개의 구동사 중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원형/확장 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는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두산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11개에서 9개로 조금 줄었다.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와 함께 제시되는 가라는 측면에서도 두산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겠다.

B. 시사 출판사 교과서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원형/확장 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18개이다. 이 중 원형 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11개(61.1%)이고, 확장 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7개(55.64%)이다. 18개의 구동사 중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시사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원형/확장 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13개이다. 이 중 원형 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4개(30.8%)이고, 확장 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8개(61.5%)이다. 13개의 구동사 중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8)과 같이 1개(7.7%)이다. 예문 (8a)는 원형 의미이고, (8b)는 확장 의미이다.

(8) a. A large map was **hanging on** a wall. (매달리다-10과)

b. A genius does not **hang on** to the old ways of looking at things. (유지하다, 고수하다-7과)

위의 예문 (8a)의 'hang on'은 글자 그대로 '벽에 매달리다'란 뜻이므로 원형의미이고, (8b)의 'hang on'은 실제로 매달리는 의미에서 확장되어 추상적인 뜻인 '사고나 방식에 매달리다, 고수하다'의 뜻이므로 확장의미인 것이다.

원형/확장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는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시사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18개에서 13개로 많이 줄었다. 그러나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와 함께 제시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시사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C. 금성출판사 교과서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원형/확장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9개이다. 이 중 원형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3개(33.3%)이고, 확장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5개(55.6%)이다. 9개의 구동사 중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9)과 같이 1개(11.1%)이다. 예문 (9a)는 원형의미이고, (9b)는 확장의미이다.

(9) a. If you find yourself **looking up** at the clock all the time, you should probably choose a different book. (위를 쳐다보다-1과)

b. Even in the forests, people who have little contact with the rest of the world **look up** to tigers as religious symbols. (존경하다-12과)

위의 예문 (9a)의 ‘look up’은 실제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다’란 뜻이므로 원형의미이고, (9b)의 ‘look up’은 ‘위를 쳐다보다’란 뜻에서 추상적으로 확장된 ‘~를 존경하다’의 의미이므로 확장 의미이다. ‘위를 쳐다보다’라는 뜻에서 확장된 뜻이 ‘~를 존경하다’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금성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원형/확장 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14개이다. 이 중 원형 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6개(42.9%)이고, 확장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7개(50%)이다. 14개의 구동사 중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10)과 같이 1개(7.1%)이다. 예문 (10a)는 원형 의미이고, (10b)는 확장의미이다.

(10) a. You can wear RunMate shoes not only when you're **working out** or playing sports; they also look nice when you're wearing jeans. (운동하다-2과)

b. Mainly, I wanted more pixels and a more compact camera, and this one **worked out** perfectly. (해결하다, 답을 찾다-2과)

위의 예문 (10a)의 ‘work out’은 ‘밖에서 일하다’의 문자적 의미에서 ‘운동하다’의 의미로 쓰이므로 원형 의미이다. 지금은 ‘(밖에서든 안에서든) 운동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10b)의 ‘work out’은 ‘해결하다, 답을 찾다’의 뜻으로 쓰이는 데, 이는 ‘작동하다(work)’의 의미에서 확장된 추상적인 뜻이므로 확장의미인 것이다.

원형/확장 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는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금성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9개에서 14개로 많이 늘어났다. 원형 의미와 확장의미로 쓰인 구동사도 모두 그 수가 늘었다. 확장의미가 원형 의미와 함께 제시되는 구동사의 수는 같으나, 전반적으로 금성 7차 개정교육과

정 교과서가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구동사 이해 측면에서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과서별 구동사의 비교·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구동사의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와 더불어 제시되는 경우는 1개(7.1%~11.1%)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확장 의미의 구동사를 이해할 때 원형 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의 개념을 이해한 뒤 구동사의 뜻을 파악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3.1.2 문자의미와 관용의미

구동사의 관용 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7차 교육과정 교과서 3종과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3종에서 조사하여 아래 <표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2> 7차/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별 문자의미와 관용의미 분포

	두산 7차	두산 7차 개정	시사 7차	시사 7차 개정	금성 7차	금성 7차 개정
문자의미	4(28.6%)	10(47.6%)	9(45%)	15(45.4%)	10(41.6%)	8(42.1%)
관용의미	9(64.3%)	9(42.9%)	10(50%)	16(48.5%)	13(54.2%)	10(52.6%)
문자의미 + 관용의미	1(7.1%)	2(9.5%)	1(5%)	2(6.1%)	1(4.2%)	1(5.3%)
합 계	14	21	20	33	24	19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쓰인 구동사의 문자 의미와 관용의미 분포를 교과서별로 살펴보겠다.

A. 두산출판사 교과서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문자/관용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14개이다. 이 중 문자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4개(28.6%)이고,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9개(64.3%)이다. 14개의 구동사 중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11)과 같이 1개(7.1%)이다. 예문 (11a)는 문자의미이고, (11b)(11c)는 관용의미이다.

- (11) a. He **put** his ice cream **on** top. (~위에 두다-6과)
- b. At night, some people **put on** a dragon costume and dance through the streets under the full moon. (입다-7과)
- c. From then on, whenever she had an accident, ready-made bandages were on hand for her to **put on** quickly. (붙이다-6과)

위의 예문 (11a)의 ‘put on’은 ‘아이스크림을 꼭대기에 두다’란 뜻으로 실제로 접촉하여 ‘~에 두다’라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이다. (11b)와 (11c)의 ‘put on’은 ‘접촉하여 ~에 두다’의 의미에서 출발한 ‘입다, 붙이다’의 의미인데 이것은 추상적의미가 아니므로 관용의미로 보았다.

두산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문자/관용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21개이다. 이 중 문자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10개(47.6%)이고,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9개(42.9%)이다. 21개의 구동사 중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12),(13)과 같이 2개(9.5%)이다. 예문 (12a)(13a)는 문자의미이고, (12b)(13b)는 관용의미이다.

(12) a. **Get** this Harijan woman **off** me! (떼어내다-5과)

b. You should take line number 1 and **get off** at Jongno 3-ga.
(내리다-7과)

(13) a. One day, the customer came in as usual, **put** his money **on** the counter. (~위에 두다-9과)

b. She took out her best silk dress and **put** it **on**. (입다-9과)

위의 예문 (12a)의 'get off'는 '떼어놓다, 떼어내다'라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이다. (12b)의 'get off'는 '떼어놓다, 떼어내다'의 의미에서 출발한 '(차에서) 내리다'의 의미인데 이것은 추상적의미가 아니므로 관용의미인 것이다.

문자/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는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두산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14개에서 21개로 많이 늘어났다. 문자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도 많이 늘었다.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는 같았다. 구동사의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두산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더 낫다

고 할 수 있다.

B. 시사출판사 교과서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문자/관용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20개이다. 이 중 문자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9개(45%)이고,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10개(50%)이다. 20개의 구동사 중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14)과 같이 1개(5%)이다. 예문 (14a)는 문자의미이고, (14b)는 관용의미이다.

- (14) a. The dog **puts** its paw **on** the counter to pay for the soup.
(~위에 두다-5과)
- b. On the day of the trial, Father **put on** his best suit. (입다-9과)

시사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문자/관용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33개이다. 이 중 문자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15개(45.4%)이고,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16개(48.5%)이다. 33개의 구동사 중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15),(16)과 같이 2개(6.1%)이다. 예문 (15a)(16a)는 문자의미이고, (15b)(16b)는 관용의미이다.

- (15) a. I **looked up** to see what he was looking at. (위를 쳐다보다-4과)

b. The instructor gave us the official Samulnori website and told us to **look** it **up**. (찾아보다-5과)

(16) a. **Turn down** the volume on your MP3 player. (소리를 낮추다-2과)

b. He or she might **turn** the gift **down** several times. (거절하다-8과)

위의 예문 (15a)의 'look up'은 '위를 쳐다보다'라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이다. (15b)의 'look up'은 '(사전이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다'의 의미로 추상적 의미가 아니므로 관용의미인 것이다. 예문 (16a)의 'turn down'은 '둘러서 낮추다'라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이고, (16b)의 'turn down'은 '거절하다'의 의미로 관용의미로 쓰인 것이다.

문자/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는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시사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20개에서 33개로 훨씬 많이 늘어났다. 문자의미나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도 많이 늘었다. 시사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구동사의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아 구동사 이해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C. 금성출판사 교과서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문자/관용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24개이다. 이 중 문자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10개(41.6%)이고,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13개(54.2%)이다. 24개의 구동사 중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17)과 같이 1개(4.2%)이다. 예문 (17a)는 문자의미이고, (17b)는 관용의미이다.

(17) a. He **put** his hand **on** Anthony's shoulder. (~위에 두다-9과)

b. If you have to drive, you are advised to **put on** chains or use snow tires. (끼우다-6과)

금성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문자/관용의미를 가지는 구동사는 모두 19개이다. 이 중 문자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8개(42.1%)이고,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는 10개(52.6%)이다. 19개의 구동사 중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예(18)과 같이 1개(5.3%)이다. 예문 (18a)는 문자의미이고, (18b)는 관용의미이다.

(18) a. Finally, Randolph **got to** Cinderella's house. (도착하다-4과)

b. But as my anger went away I **got to** know her, and she became my greatest friend at Clarkbury. (~하기 시작하다-1과)

예문 (18a)의 'get to'는 '~에 도착하다, 이르다'라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이다. (18b)의 'get to'는 문자적 의미인 '~이르다'의 뜻이 아니라 '그녀를 알기 시작하다'의 뜻이므로 관용의미인 것이다.

문자/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는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금성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24개에서 19개로 줄었다. 문자의미로 쓰인 구동사와 관용의미로 쓰인 구동사의 수도 조금씩 줄었다. 그러나 구동사의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되는 경우는 금성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모두 1개로 개수가 같았고 비율로 보면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조금 더 높았다.

앞 절에서 살펴본 원형의미/확장의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총 6권의 교과서에서 구동사의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더불어 제시하는 경우는 1개~2개(4.2%~9.5%)로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되는 빈도수를 보아도 관용의미로 쓰이는 구동사가 문자의미로 쓰이는 것보다 더 많았다.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구동사의 관용의미만 익힌다면 문자의미를 접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관용의미는 문자의미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학습자들이 구동사의 관용의미와 문자의미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구동사의 확장 의미가 원형의미와 함께 제시되는지 그리고 관용의미가 문자의미와 함께 제시되는지를 교과서에 쓰인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교과서에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1.3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조사하여 얻은 결과가 <표3>과 같다.

<표3> 교과서별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두산 7차	두산 7차 개정	시사 7차	시사 7차 개정	금성 7차	금성 7차 개정
과대부호화 된 구동사 수	9	14	16	17	10	9
두 가지 이상 의미 제시	0(0%)	1(7.1%)	1(6.3%)	1(5.9%)	0(0%)	2(22.2%)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쓰인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지 교과서별로 살펴보겠다.

A. 두산출판사 교과서

하나의 구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수는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9개가 쓰였고, 두산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는 14개가 쓰였다.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두 가지 이상 의미를 보여주는 예는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없고,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는 1개(7.1%)가 쓰였다.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는 구동사는 ‘take out’이다. ‘take out’의 예를 보자. 영어는 사람과 사물의 차이에 상관없이 꺼내는 것을 하나의 표현, 즉 ‘take out’으로 부호화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여 부호화한다. 사람인 경우에는 ‘데리고 나가다’이고 사물인 경우에는 ‘꺼내다’의 뜻이 된다. 예문 (19a)는 ‘꺼내다’의 의미이고, 예문 (19b)는 ‘데리고 나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19) a. She **took out** her best silk dress.(9과)

b. He **took** the angry artist **out** and then came back.(9과)

하나의 구동사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면에서 두산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두산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B. 시사출판사 교과서

하나의 구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수는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16개가 쓰였고, 시사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는 17개가 쓰였다.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두 가지 이상 의미를 보여주는 예는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1개(6.3%)이고,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역시 1개(5.9%)이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쓰인 ‘go on’의 예문 (20a)(20b)는 ‘계속하다’의 의미이고, 예문 (20c)는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이다.

- (20) a. Are there any specific projects **going on** to build space colonies?(12과)
b. I **went on** to explain.(10과)
c. How do you find out what's **going on** in the world?(11과)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쓰인 'go on'의 예문 (21a)는 '계속하다'의 의미이고, 예문 (21b)는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이다.

- (21) a. "Yes, she is **going on** with the lesson" (2과)
b. Their classmates started laughing, and Ms. Lewis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2과)

하나의 구동사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면에서 시사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시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쓰인 예가 1개로 같고 비율도 비슷하였다.

C. 금성출판사 교과서

하나의 구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수는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10개가 쓰였고, 금성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는 9개가 쓰였다.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두 가지 이상 의미를 보여주는 예는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없고,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는 2개(22.2%)가 있다.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는 구동사 'pick

up'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문 (22a)는 '집어 들다'의 의미이고, 예문 (22b)는 '선택하여 사다'의 의미이다.

- (22) a. One day on his way home Charlie **picks up** a one-dollar bill on a snow-covered road.(9과)
b. The shoes are perfect for a active people and won't fail you. **Pick up** a pair today.(2과)

또 다른 예로 'go through'가 있는데, 예문(23a)(23b)는 '겪다, 경험하다'의 의미이고, 예문 (23c)는 '다 읽다'의 의미이다.

- (23) a. Whatever sleeping habits people may have, they all **go through** the same sleeping stages.(5과)
b. Because she was a black woman, she had to **go through** a great deal of unfair discrimination to build her career at that time.(8과)
c. I think I **went through** all the Tarzan books thirty feet or so above the ground.(1과)

하나의 구동사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면에서 금성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금성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6권의 교과서에서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 의미를 제시하는 경우는 1개~2개(7%~22%)이다. 대부분의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하나의 의미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

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익히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자료가 교과서에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상으로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구동사 학습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 교수방안을 논하여 보겠다.



3.2 효과적 교수방안

앞 절에서 구동사를 비교·분석할 때 범주화한 구동사 의미를 바탕으로 구동사 학습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 교수방안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구동사의 기본적인 원형의미를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적인 원형의미를 알아야 그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된 추상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관용적 의미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구동사의 기본적인 원형의미를 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동사에 많이 쓰이는 기본 동사의 뜻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동사를 이루는 불변화사의 기본적인 뜻과 하나의 불변화사에 대해 기본적인 뜻에서 파생되어 나온 뜻 또는 확장된 다양한 뜻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둘째, 구동사들이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그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확장의미의 구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암기식 학습방법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 구동사의 원형의미를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형의미로 쓰이는 예문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은유적이고 추상적 의미를 원형의미에서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원형의미를 예문을 통해 함께 제시해 주거나 확장의미로 쓰인 또 다른 예문을 많이 제시해 주어 연습을 통해 확장의미가 학생들의 인지 체계에 남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만 학습하게 되면 의미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암기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구동사의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는 원어민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하게 여겨져

의사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도 함께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과대부호화된 구동사는 하나의 구동사에 대해 한국어의 뜻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구동사를 학습할 때, 교사가 교과서에 언급된 한 가지 뜻만 가르친다고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다른 책에서 다른 뜻을 접하였을 때 그 뜻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구동사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과대부호화되는 구동사를 가르칠 때는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구동사를 다른 뜻을 지닌 예문과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IV. 결 론

현대 영어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서 일상적인 구어체 영어나 비격식적인 언어 상황에서 더욱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구동사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구동사에 대한 이해나 지식 없이는 현대 영어를 쉽게 이해하거나 활용하여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학생들이 구동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 뒤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새로이 바뀐 7차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구동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더 잘 구성되어 있는지 사뭇 궁금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쓰인 구동사와 새로이 바뀐 2009학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쓰인 구동사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학생들이 구동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다양한 뜻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었다.

그래서 I 장에서 제시한 연구 과제가 세 가지 있었다.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구동사의 확장 의미가 원형의 의미와 함께 제시되고 있는가? 둘째,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가 문자적 의미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가? 셋째,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과대부호화된 구동사가 다양한 의미로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7차 교육과정 교과서 3권과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3권 총 6권을 분

석해 본 결과, 구동사의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와 더불어 제시되는 경우가 0개~1개(0%~11%)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확장의미의 구동사를 이해할 때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의 개념을 이해한 뒤 구동사 뜻을 파악하거나, 확장의미를 원형의미와 함께 학습함으로써 개념이해가 잘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가 문자적 의미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는 1개~2개(4%~9%)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관용적 의미와 함께 문자적 의미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구동사가 그 다양한 뜻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0개~2개(0%~22%)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익히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도 또한 힘들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문자의미와 관용의미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과대부호화된 구동사의 다양한 뜻도 더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 연구 결과는 7차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교과서를 저술하는 저자들은 교과서를 집필할 때 내용 중심으로 각 과를 구성하리라 예상된다. 교과서의 열 두과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 내에서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와 쓰임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구동사의 이해와 활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에 7차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출판되는 교과서는 구동사의 이해와 활용을 좀 더 고려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길 간절히 바란다.

분 석 자 료

김성곤, 권혁승, 한정임, 박용예, 김재명. (2002) High School English. 서울: 두산출판사

김성곤, 윤정미, 송미정, 박용예, 강은경, 문도식, 윤미정, 정석환, Johanna L. Haas. (2009) High School English. 서울: 두산출판사

신정현, 황혜숙, 정상준, Leah Miller. (2002) High School English. 서울: 와이비엠시사출판사

신정현, 유명숙, 장윤옥, 조금희. (2008) High School English. 서울: 와이비엠시사출판사

김덕기, 배종언, 안동환, 최종욱, 안병규, 오준일, 강대철, 신인숙, 김서령, Anna Dahland. (2002) High School English. 서울: 금성출판사

권오량, 신상근, 이후고, 조자룡, 신인화, 오주혜, Edward Roland Gray. (2009) High School English. 서울: 금성출판사

참 고 문 헌

- 구학관(2000). 「필수 Idiom 활용파일」. 서울: testbank21.com.
- 김은일·박매란(2002).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구동사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언어과학」 9: 34-54.
- 김정기(1994). 구동사해설집」. 서울 : 거로출판사.
- 송부선(2008). 영어 구동사의 인지적 학습 방안. 「현대영어영문학」 52-4:141-162.
- 신명신(2008). 영어 다어 동사 교수의 문제와 제안. 「언어과학」 8:179-206.
- 오주영(2004). 영어 구동사의 인지적 학습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11-1:145-164.
- 원자희(2003). 「7차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인지언어학적 구동사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윤재성(2004). 「영어구절동사」. 서울: 한국문화사.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 정송희(2007).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영어 구동사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Phrasal Verbs Dictionary* (2nd ed.). (200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83).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Rowley, MA: Newbury House.
-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Phrasal Verbs*. (1989). London: Williams Collins Sons & Co. Ltd.
- Collins COBUILD Phrasal Verbs Dictionary* (2nd ed.). (2002). Glasgow: HarperCollins Publishers.
- Courtney, R. (1983).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Harlow, Essex: Longman Group Ltd.
- Cowie, A. and R. Mackin (1993). *Oxford Dictionary of Phrasal Verbs*.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ok, J. N. (1981). *Two-word Verbs in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Houghton M. (2005).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Phrasal Verbs*.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cmillan Phrasal Verbs Plus* (2005). Oxford: Bloomsbury Publishing Plc.
- O'Dowd, E. M. (1998). *Preposition and Particles in English: A Discourse-functional Accou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Phrasal Verbs Dictionary for Learners of English* (2nd ed.). (200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